

##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진 현 준

이 기 학<sup>†</sup>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소명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과정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재학생 245명(남학생 117명, 여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소명 척도, 의미추구 척도, 의미발견 척도, 진로적응성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SPSS 25.0과 SPSS Macro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매개모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적응성은 소명, 의미추구, 의미발견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소명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순차적으로 부분매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상담 장면에서의 적용과 한계점,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소명, 의미추구, 의미발견, 진로적응성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khlee2445@yonsei.ac.kr

진로 문제는 개인의 생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과업이다. 또한 진로 발달은 한 시점에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이루어진다(장계영, 김봉환, 2011). 특히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직업 세계와 개인의 진로 발달 과업 또한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대학 시기는 개인이 학업을 수행하며 지적 능력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로 진출하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 사회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기 위한 이행을 준비하는 시기이다(Arnett, 2007). 다양한 탐색활동을 통한 진로 선택과 직업세계로의 전환은 이 시기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일 것이다(장계영, 김봉환, 2011). 하지만 직업 환경이 급변하고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현상에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듯 직업 시장에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 활용된 개인-환경 매칭이론, 직업성격이론에서 전제했던 선형적인 진로발달의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Savickas, 1997). 다시 말해, 변화와 불확실성이 심화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는 것이 성공적인 진로 발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장계영 외, 2011).

최근 진로 연구에서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은 대학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에 진출한 이후 단계에서의 적응 등 전생애에 걸친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적응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Savickas, 1997). 진로적응성은 정해지고 예상 가능한 진로 과업뿐만 아니라 일의 형태나 근무여건이 변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환경

의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성을 의미한다(Savickas, 1997). Super(1951)의 이론에 따르면 진로 발달은 생애의 흐름,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사회에서는 진로발달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의 변화에 따라 진행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은 진로전환 또는 진로 재순환 등을 경험할 수 있다(조보람, 이정민, 2017).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진로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진로 구성주의이론이다. 진로 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주변 환경을 주어진 것으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주체적, 주관적으로 환경을 재해석하고 그것에 적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중시되는 것이 진로적응성이다(Young & Collins, 2004).

진로적응성이 성공적인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진로적응성이 높은 개인은 고용 가능성과 조직에서의 수행, 진로 성공의 수준이 높으며, 진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Kristof-Brown, Zimmerman, & Johnson, 2005; Porfeli & Savickas, 2012; McArdle, 2017; Chan, Mai, Kuok, & Kong, 201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은 진로관여행동,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등에 영향을 주고, 진로 관련 상황에서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 조절 작용을 통해 진로 발달 과업 수행을 도우며, 더 나아가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지근, 이기학, 2016; 김민선, 2016; Savickas, 2005; 박현, 2014; 김수영, 배성아, 2014; 이지원, 이기학, 2015; Hirschi, 2009; Creed, Muller, & Patton, 2003; Germeijs &

Verschuereen, 2007; 정은이, 2014).

소명은 본래 종교적인 관점에서 탄생하여 특정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를 지닌 개념이지만 현재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직업이나 진로의 영역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Dobrow, & Tosti-Kharas, 2011; Duffy, Bott, Allan, Torrey, & Dik, 2012; Hall & Chandler, 2005). Dik과 Duffy(2009)에 따르면, 소명은 ‘초월적 부름’, ‘목적 또는 의미’, ‘친사회적 지향’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써 정의되며, 다양한 진로 관련 변인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알려져 왔다. 소명이 진로 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김영석, 이상희, 2016; 민지현, 강에스터, 이혜주, 2017; 신윤정, 2013; 이지원, 이기학, 2015; Douglass & Duffy, 2015; Praskova, Hood, & Creed, 2014).

진로적응성과 소명과의 관계는 진로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유추된 바 있다(신윤정, 2013). 진로 구성주의 이론은 개인이 진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나 사건,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중시한다(Savickas, 2005). 즉, 진로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주관적인 경험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변화에 유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나미현, 2018; Savickas, 2005). 소명은 진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변인으로(박주현, 유성경, 2012)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자신만의 진로 경험을 재구성해내는

데에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진로에 대한 개인적 의미부여, 즉 소명을 갖는 것은 진로탐색과 계획, 결정 등 진로와 관련된 과업을 수행할 때 유연한 적응성을 갖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신윤정, 2013). 소명을 가진 사람은 역경에 마주해도 굴하지 않고 진로 관련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긍정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진로발달에 임한다고 논의된 바 있다(Hall & Chandler, 2005). Hall과 Chandler(2005)은 소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적성과 강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경에 부딪혀도 진로 관련 행동을 지속해나갈 수 힘이 있으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높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데 유용한 심리적 자원으로 활용되어 적응성을 높여줄 수 있다(Hall et al., 2005).

소명이 개인의 진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명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편안함과 명확성 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주현, 유성경, 2012; 양난미, 이은경, 2012; 심예린, 유성경, 2012; Duffy & Sedlacek, 2007; Hirschi, 2011). 또한, 높은 수준의 소명을 지닌 사람은 진로에 대한 몰입도와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Steger, Pickering, Shin, & Dik, 2010), 진로발달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인다(Dik, Sargent, & Steger, 2011; Hall & Chandler, 2005). 이처럼 소명은 개인이 진로 발달에서 적응성을 갖추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삶의 의미는 개인이 실존에서 의미와 질서, 일관성을 형성하며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살아가면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 중 하나이기도 하다(Frankl, 1994; Wong & Fry, 1998). 개인의 삶에서 직업이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삶 전반의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 진로가 앞으로 나아갈 인생에 대한 방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진로 발달과 삶의 의미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Dik & Steger, 2008).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삶의 의미는 개인의 성장과 적응을 돕는 하나의 심리적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다(Davis & Morgan, 2008; Park & Ai, 2006; Tedeschi & Calhoun, 2004). 삶의 의미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바탕으로 외부의 변화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인 삶의 방향을 유지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Frankl, 1959). 또한, 부정적인 생애사건이 발생하면 개인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지 체계가 흔들리고 이로 인해 심리적인 불균형 상태가 발생했을 때,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개인은 기존의 체계와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의 의미 사이의 간극을 줄여 균형 상태로 돌아가고 통제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Heine, Proulx, & Vohs, 2006). 진로와 관련하여 삶의 의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삶의 의미 수준이 높으면 진로를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개인의 적응력을 높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밝혀졌다(조은혜, 2013; Duffy & Sedlacek, 2007). 또한, 높은 수준의 삶의 의미는 높은 진로성숙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삶의 의미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김영석, 이상희, 2016; 박은주, 2011; 조은혜, 이동귀, 배병훈, 2012).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6)가 개념화한

삶의 의미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두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의미추구는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를, 의미발견은 현재 삶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의미하는데, Steger와 그의 동료들(2006)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독립적인 요인임을 제안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삶의 의미는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발견했다고 지각하는 삶의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Steger, Kashdan, Sullivan, & Loentz, 2008). 즉, 삶의 의미는 의미추구보다는 의미발견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경우 삶의 의미의 효과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송현심, 성승연, 2017). 이에 따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나누어 개인이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경희, 이희경, 2013; 김기정, 김해란, 2016; 조은혜, 이동귀, 배병훈, 2012). 의미 추구하고 의미 발견이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 맺는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의미추구와 의미 발견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고 일관적이지 않으며, 두 요인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의미추구 그 자체는 신경증,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의미 추구가 의미 발견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주관적인 안녕감에 기여하게 위해선 반드시 의미 발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결과가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정주리, 이기학, 2007; Steger et al., 2006; Steger, Oishi, Kesebir, 2011; Cohen & Cairns, 2010). 더불어,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고통스

러운 과정일 수 있는 만큼 개인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삶의 의미가 없는 부적응적인 상황에서 개인은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는 논의 또한 존재한다(원두리, 김교현, 2005; Frankl, 1963). 반면 의미추구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결과들도 있었다. 의미추구는 자기 존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이자 자기성장을 위한 동기이며(Steger, Oishi, & Kashdan, 2009),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추구하며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열망으로 볼 수 있으며(Steger, Kashdan, Sullivan, & Lorentz, 2008), 의미 발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긍정정서와 안녕감,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 재해석, 삶의 만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외상 후 개인의 심리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이희경, 2013; 김보라, 신희천, 2010; 백지영, 서수균, 2014; 송현심, 성승연, 2017; Baumeister, 1991; Baumeister & Vohs, 2002). 또한, 의미 추구는 반드시 의미발견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의 안녕감을 높이기도 하였다(김경희 외, 2013; Steger et al., 2011). 요컨대, 의미 발견이 주관적 안녕감이나 긍정적인 정서 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난 반면, 의미추구는 관련 변인 혹은 연구 대상자의 문화권에 따라 엇갈리는 결과를 보였다. 단적인 예로, 서양 문화권에서는 의미 추구하고 의미 발견이 부적 상관을 보였고, 의미 발견과 달리 의미 추구는 안녕감을 비롯한 긍정적인 심리지표와 부적인 상관을 보이거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반면(Steger et al., 2006; Steger et al., 2009; Steger et al., 2006), 국내 연구에서 의미 추구하고 의미 발견은 정적인 상관

을 보였다(김경희 외, 2013; 송현심 외, 2017;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심예린, 2010).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서양인들은 의미 추구하고 의미 발견을 독립된 것으로 여겨 의미를 추구한다고 해서 의미 발견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는 반면, 전체적인 인지 특성을 보이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의미 추구하고 의미 발견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이 있다(Steger, Kawabata, Shimai, & Otake, 2008). 또한, 원두리 등(2005)은 국내 연구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의미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삶의 의미가 달성되면 종료되는 목표가 아닌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가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일에서의 의미 경험을 중시하는 것은 소명의 하위개념 중 하나이며, 소명과 삶의 의미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Dik, Sargent, & Steger, 2008). 소명이 긍정적 심리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높은 수준의 소명을 가진 사람은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수준도 높다고 밝혀진 바 있다(장진이, 이지연, 2014; 정민영, 최한나, 2015; Duffy, Bott, Allan, Torrey, & Dik, 2012; Duffy & Dik, 2013).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가 진로 문제에서 높은 수준의 적응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Baumeister와 Vohs(2002)는 삶의 의미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1) 현재 삶에 방향을 부여해주는 목표, 2) 삶에 대한 긍정과 특정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가치, 3)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 4) 자기가치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의미를 통해 개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에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삶의 의미가 개인의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Baumesiter & Vohs, 2002). 또한, 삶의 의미 수준이 높으면 진로결정수준이 높고, 반대로 삶의 의미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 문제에 대해 비자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장문희, 1994). 개인이 삶에서 질서와 일관성을 형성하며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삶의 의미는 진로 발달 과정에서 미래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되고 있다(조은혜, 이동귀, 배병훈, 2012; 이나경, 안권순, 20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명과 진로 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단,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삶의 의미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다룬 삶의 의미는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발견했다고 지각하는 삶의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았다 (Steger, Kashdan, Sullivan, & Loentz, 2008). 이 경우 삶의 의미가 갖는 효과를 설명해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송현심, 성승연, 2017). 의미발견이 주관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느낌, 상태를 의미하는 한편 의미추구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 혹은 동기를 의미한다는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6)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소명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과 삶이 의미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은 다수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 의미추구가 인간의 핵심적, 실존적인 동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소명을 지닌 사람이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 또한 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Dik, Sargent와 Steger(2008)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관심 있는 일에서 소명을 찾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할수록 내적인 동기가 높은 경향성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소명을 가진 사람이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소명을 가진 사람은 일과 삶에서의 의미경험을 중시하는 만큼,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특정 진로에 대해 소명이 있는 사람은 금전적인 이득이나 승진이 아니라, 일이 주는 의미와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일을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Wrzen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 1997).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는 소명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적 동기가 강하다고 보고되었는데, 돈이나 명예 등 외적 보상보다 일 자체가 주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 또한 하나의 내적 동기라고 볼 수 있다(신윤정, 2013).

종합하면, 삶의 의미가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인데, 이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단계로 세분화하여 볼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소명을 가진 사람일수록 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며, 그럴수록 의미발견의 단계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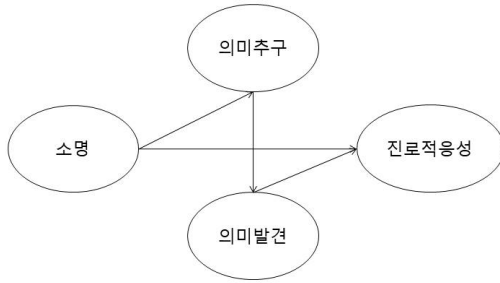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유성경, 김유진, 2015; 정주리, 이기학, 2007).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일수록 높은 진로적응성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명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소명은 의미 추구하고 의미 발견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의미 추구하고 의미 발견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을 종합하여 모형도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학과연구심의회(DRC)로부터 연구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운데, 모든 문항에 동일한 답을 작성하였

거나, 응답시간이 6분 미만인 5명의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총 245개이고, 성별구성은 남학생 117명(47.8%), 여학생 128명(52.2%), 학년별 구성은 1학년 97명(38.8%), 2학년 76명(31.0%), 3학년 32명(13.1%), 4학년 33명(13.5%), 5학년 이상 9명(3.7%)으로 나타났다. 평균 나이는 만 20.70( $SD=2.16$ )세이다.

### 측정도구

#### 소명

대학생의 소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ik, Eldridge, Steger와 Duffy(2008)가 개발한 소명척도(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를 심예린(2010)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CVQ-K)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소명 척도는 ‘초월적 부름’,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의 3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척도로, 각 하위 척도당 4개 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에서 4점(전적으로 해당된다)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3번은 역채점 문항이다. 심예린(2010)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4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다.

####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

의미추구(Search for meaning)과 의미발견(Presence of meaning)은 삶의 의미(Meaning in Life)의 두 하위요인이다. 이들을 측정하기 위해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6)가 개발하고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2005)이 번안 및 타당화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를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 척도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2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각 하위 척도당 5개 문항씩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하위 척도를 구분해서 사용하였다. 의미추구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고, 의미발견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인생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Steger 등(2006)이 여러 표본을 대상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조사했을 때 의미 추구는 .86-.87로, 의미발견은 .82-.86으로 나타났고, 윈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모두 .8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추구 .93, 의미발견 .90이었다.

###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Savickas와 Porfeli(2012)가 개발한 진로적응성 척도(Career Adapt-Abilities Inventory; CAAS)를 Tak(2012)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적응성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 진로 걱정, 통제, 호기심, 확신의 4개 하위요인당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다. Savickas 외(2012)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2로 보고되었고, 탁진국(2012)은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93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3로 보고되었다.

###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산출하여 전체 응답의 경향성을 파악하였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내적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이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Hayes(2012)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 중다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Macro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구간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95% 신뢰구간(Biased-corrected CI)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Shrout & Bolger, 2002).

## 결 과

###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명, 의미추구, 의미발견, 진로적응성을 측정하였고,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왜도, 첨도를 산출하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진로적응성에 대해 소명( $r=.548, p<.01$ ), 의미추구( $r=.579, p<.01$ ), 의미발견( $r=.672, p<.01$ )이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명은 의미추구( $r=.524, p<.01$ )와 의미발견( $r=.491,$



표 1. 기술통계 및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1. 소명	-			
2. 의미추구	.524**	-		
3. 의미발견	.491**	.530**	-	
4. 진로적응성	.548**	.579**	.672**	-
<i>M</i>	2.36	4.97	4.40	3.85
<i>SD</i>	.56	1.28	1.35	.55

\* $p < .05$ , \*\* $p < .01$ , \*\*\* $p < .001$

$p < .01$ ) 모두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개효과 검증

소명이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매개로 진로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대로 순차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소명)이 종속변인(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단순회귀분석을,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첫 번째 매개변인(의미추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단순

회귀분석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첫 번째 매개변인이 두 번째 매개변인(의미발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중다회귀분석을, 마지막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두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매개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 의미추구, 의미발견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적응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산출한 결과, VIF가 최소 1.51(소명)에서 최대 1.60(의미추구)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표 2.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i>t</i>	<i>p</i>	<i>F</i>	<i>R</i> <sup>2</sup>
진로적응성	소명	.54	.05	.55	10.26	.000	105.24	.30
	의미추구	1.20	.12	.52	9.63	.000	92.78	.28
의미발견	소명	.71	.15	.30	4.83	.000	63.99	.34
	의미추구	.40	.06	.38	6.20	.000		
진로적응성	소명	.20	.05	.21	3.89	.000	98.42	.55
	의미추구	.10	.02	.24	4.32	.000		
	의미발견	.18	.02	.45	8.38	.000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적응성에 소명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1,245)=105.24, p<.01$ ), 모형의 설명력은 30.0%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로적응성에 대한 소명의 영향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는 소명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의미추구에 소명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1, 245)=92.78, p<.01$ ), 모형의 설명력은 2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미추구에 대한 소명의 영향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는 소명의 수준이 높을수록 의미추구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발견에 대한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34%의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 244)=63.99, p<.01$ ). 의미발견에 대한 소명과 의미추구의 영향력은 전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는 소명의 수준이 높을수록 의미발견의 수준이 높아지고, 의미추구의 경향이 강할수록 의미발견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진로적응성에 대한 회귀모형은 55%의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소명, 의미추구, 의미발견과의 관계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F(3, 243)=98.42, p<.01$ ). 즉, 소명이 높고, 의미추구의 경향이 강하며, 의미발견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 소명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모형에 포함되었을 때보다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매개하는 모형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Shrout과 Bolger(2002)가 제안한 이 방법은 가상의 무선 표본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 유의성이 통계적 무선오차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방법이다. 부트스트래핑은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은 5,000개였고,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소명이 의미추구를 거쳐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12, 95\%, CI = [.07, .19]$ ). 이는 소명이 높을수록 의미추구 경향이 강하고 이것이 높은 수준의 진로적응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소명이 의미발견을 거쳐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이 0

표 3.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소명→의미추구→진로적응성	.12	.03	.07	.19
소명→의미발견→진로적응성	.13	.03	.07	.20
소명→의미추구→의미발견→진로적응성	.09	.02	.05	.13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13$ , 95%, CI = [.07, .20]). 이는 소명이 높을수록 의미발견의 수준이 높고 이것이 높은 수준의 진로적응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명이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차례로 거쳐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을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B=.09$ , 95%, CI = [.05, .13]). 이는 소명이 높을수록 의미추구의 경향이 강해지고, 이것이 높은 수준의 의미발견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진로적응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명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해당 관계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소명이 진로적응성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기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를 통해 학업 장면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과정을 경험하는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독립변인인 소명과 종속변인인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변인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명의 수준이 높으면 진로적응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영석, 이상희 2016; 신윤정, 2013; 민지현, 강에스더, 이해주, 2017).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는 Savickas(2005)의 진로 구성주의 이론의 틀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의 진로 발달에서 중요한 것은 진로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개인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고유한 가치에 따라 진로 관련 경험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진로 구성주의 이론의 핵심 논의이다. 다시 말해,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는 접근을 의미하는 소명은 개인으로 하여금 난관이나 장벽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진로를 계속해서 지속해나가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진로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진로적응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삶의 의미는 소명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삶의 의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는데(권선영, 김명소, 2016; 김영석 외, 2016; 장진이, 이지연, 2014; 정민영, 최한나, 2015; Duffy, Allan, & Bott, 2012; Steger, Pickering, Shin, & Dik, 2010), 이와 같은 흐름은 본 연구에서도 소명과 의미 추구, 의미 주어진 역할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소명의 한 단면인 만큼 정의 자체로 소명은 일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Dik & Duffy, 2009), 높은 수준의 소명을 가진 사람이 높은 직업만족과 낮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일을 도구적으로 보지 않고 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결과 또한 보고된 바 있다(박주현, 유성경, 2012; Clase & Quintanilla, 1994; King, Miles, & Day, 1993). 요컨대, 일과 삶의 영역 모두에서 소명은 개인의 의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그를 통해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제공한다.

나아가서, 삶의 의미는 개인의 안녕감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적응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특히 삶의 위기나 역경을 이겨내는 강력한 자

원으로 알려져 있다(Frankl, 1959; Park & Ai, 2006; Park & Folkman, 1997).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삶 속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며(김기정, 김해란, 2016; Baumeister & Vohs, 2002), 특히 자아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단계에 있는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에게 삶의 의미는 자아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McLean & Pratt, 2006). 더불어, 인생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갖는 것이 개인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삶의 의미가 진로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 보고된 실제 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둘째, 소명이 진로적응성의 미치는 영향을 의미추구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신윤정, 2013). 신윤정(2013)의 연구에 따르면 내적 동기가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매개하는데, 개인이 진로 과업을 수행할 때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은 진로발달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논했다. 의미 추구가 인간의 대표적인 내적 동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의 논의는 소명이 의미 추구의 동기를 높여 개인의 진로적응성을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Vallacher와 Wegner(1989)이 설명한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 즉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이상적인 목적을 찾고 달성하기 위하여 더 강하게 동기화되어 있으며 개인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도 본 연구결과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소명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발견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명이 삶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삶의 의미가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자원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Park & Ai, 2006; Park & Folkman, 1997). 삶과 일에서 의미, 목적의식을 중시하는 태도는 소명의 하위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소명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며, 이러한 의미 경험은 진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예컨대, 삶의 의미를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성숙도가 높았으며, 삶의 의미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 문제에 대한 자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은정, 2000; 조은혜, 이동귀, 배병훈, 2012). 또한, 개인은 삶의 의미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삶의 방향성과 목표의식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개인이 의미발견을 바탕으로 중요한 생애 과업 중 하나인 진로발달 과정에서 적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Baumeister & Vohs, 2002).

넷째, 소명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직간접적인 관계에 대해선 아직 경험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태인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개인이 의미를 추구하고 그 결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소명이 진로적응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과정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Steger, Kashdan, Sullivan과 Lorentz(2008)이 제안한 'search-to-presence' 모형과 일치하는 결과인데, 의미를 찾기 위해 노

력하는 개인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 문화권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의미 추구하고 의미 발견이 부적 상관을 보이고 불안, 반추 및 불행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의미 추구를 많이 하며 의미 발견 수준이 낮은 결과가 보고되어 해당 모형의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들은 현재 의미가 없다고 지각할 때 의미를 추구한다는 ‘presence-to-search’ 모형이 타당하다는 대인적인 논의가 제기되었다(Steger et al.,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의미 추구하고 의미 발견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 추구가 의미 발견의 유의미한 선행요인이라는 ‘search-to-presence’ 모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서구 문화권에서 실시된 연구와 달리 국내 연구에서는 의미 추구하고 의미 발견 사이에 정적인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어, 의미 추구하고 의미 발견의 관계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동양에서는 ‘search-to-presence’ 모형이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기정, 김해란, 2016; 김보라, 신희천, 2010; 송현심, 성승연, 2017;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유성경, 김유진, 2015; 윤민지, 유성경, 2013).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실질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적응성의 선행변인으로 성격, 기질과 같이 타고나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은 요인이 아닌, 직업이나 연령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으며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소명을 선정하고, 소명이 실제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Duffy, Bott, Allan, Torrey, & Dik, 2012; Duffy, Doborw, & Tosti-Kharas, 2011; Hall & Chandler, 2005; Wrzesn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 1997).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상담 장면에서 진로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성격 특질보다 개입이 용이한 소명을 높이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진로상담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입이 가능해졌다. 최근 진로 연구에서의 소명은 반드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논의되고 있지만, 어원 자체가 기독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소명이란 개념에 친숙하지 않은 내담자에게는 다소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Dik & Duffy, 2009). 이처럼 소명을 함양하는 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담자에게 진로가 삶에서 갖는 의미를 탐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권장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욕구이자 동기이기 때문에 (Frankl, 1959) 상담 장면에서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주제일 것이며, 적응적인 진로 발달을 위한 의미 추구하고 발견의 중요성을 상담자가 전달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군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 대학의 특성, 또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진로 관련 문제들의 수준 차이 등 다른 인구통계학적 및 심리사회적 특징을 지닌 집단에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의미 추구하고 의미 발견 모두가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 변인이 각기 다른 기능적 특성을 보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김경희, 이희

경, 2013; 정미영, 2013; Steger, Frazier, Oishi, & Kaler, 2006). 의미 발견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미 추구에서 의미 발견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미 추구가 의미 발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의미 추구와 의미 발견이 모두 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매개함에 있어 각기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후속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라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의미 추구가 의미 발견의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지만,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미 추구와 의미 발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논의 또한 존재한다 (김경희, 이희경, 2013; Steger, Frazier, Oishi, & Kaler, 2006). 그러므로 종단적 설계를 통해 의미 추구와 의미 발견의 시간에 따른 관계를 후속연구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권선영, 김명소 (2016). 직업소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151-171.
- 김경희, 이희경 (2013). 의미추구와 긍정정서가 의미발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107-124.
- 김기정, 김해란 (2016). 자기성찰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의미추구 및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12), 159-185.
- 김민선 (2016). 대학생들의 현재지향적 시간전망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12), 349-372.
- 김보라, 신희천 (2010).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17-136.
- 김수영, 배성아 (2014).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2), 429-448.
- 김영석, 이상희 (2016). 대학생의 소명, 진로적응성, 삶의 의미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3(4), 673-689.
- 김지근, 이기학 (2016).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 및 성격 관련 진로 어려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7(3), 205-223.
- 나미현 (2018). 진로적응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진로상담에의 적용.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지현, 강에스더, 이해주 (2017). 소명의식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소명실행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0(4), 491-516.
- 박미경, 김은하 (2016). 대학생의 진로소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1), 207-225.
- 박은선, 박지아 (2013). 삶의 의미 연구의 국내

- 동향과 과제. *사회과학연구논총*, 29(1), 267-299.
- 박은주 (2011). *고등학생의 삶의 의미와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현, 유성경 (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2), 543-560.
- 박현 (2014). *국가고시준비생의 진로결정상태에 진로적응성, 진로장벽, 진로타협이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영, 서수균 (2014). *스트레스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3), 509-531.
- 송현심, 성승연 (2017). *대학생과 중년성인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희망,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843-870.
- 신윤정 (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 심예린 (2010). *한국판 소명 척도 타당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난미, 이은경 (2012).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51-68.
- 유성경, 김유진 (2015). *삶의 의미추구와 주관적,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의미발견 및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53-75.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이나경, 안권순 (2015). *삶과 과제의 의미가 진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2), 727-753.
- 이지원 (2014).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구조 관계 분석: 진로선택몰입 및 전공만족의 매개효과와 진로관련 정서의 조절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원, 이기학 (2015). *대학생의 자기성장주도성과 진로소명에 따른 군집 유형별 진로적응 및 삶의 만족의 차이*. *상담학연구*, 16(6), 259-278.
- 장계영, 김봉환 (2011).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2(2), 539-558.
- 장진이, 이지연 (2014). *성인 직장인의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소명수행의식, 삶의 의미, 일의 의미, 직업 만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1), 259-278.
- 정민영, 최한나 (2015). *직장인의 소명존재 및 소명실행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삶의 의미와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6), 279-295.
- 정은이 (2014). *대학생의 진로 장애와 대학 적응의 관계에 대한 진로 몰입 및 진로 적응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7(2), 1-21.
- 정주리, 이기학 (2007). *삶의 의미발견 과정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1), 292-293.
- 조보람, 이정민 (2017). *여대생의 진로스트레스*

- 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5(5), 1-12.
- 조은혜 (2013). 고등학생의 삶의 의미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은혜, 이동귀, 배병훈 (2012).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과정에 따른 진로성숙도: 긍정 정서와 긍정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5), 2049-2065.
-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 Vohs, K. D. (2002). The pursuit of meaningfulness in life.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1, 608-618. Oxford university press.
- Bunderson, J. S., & Thompson, J. A. (2009). The call of the wild: Zookeepers, callings, and the double-edged sword of deeply meaningful work.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4(1), 32-57.
- Chan, S. H., Mai, X., Kuok, O. M., & Kong, S. H. (2016). The influence of satisfaction and promot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adaptability and turnover inten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167-175.
- Claes, R. & Quintanilla, S. A. R. (1994). Initial career and work meanings in seven European countri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4), 337-352.
- Cohen, K. & Cairns, D. (2012). Is searching for meaning in life associated with reduced subjective well-being? Confirmation and possible modera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2), 313-331.
- Creed, P. A., Muller, J., & Patton, W. (2003). Leaving high school: The influence and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related confidence. *Journal of adolescence*, 26(3), 295-311.
- Davis, C. G., & Morgan, M. S. (2008). Finding meaning, perceiving growth, and acceptance of tinnitus. *Rehabilitation Psychology*, 53(2), 128.
- Dik, B. J., Sargent, A. M., & Steger, M. F. (2008). Career development strivings: Assessing goals and motivation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plann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5(1), 23-41.
- Dik, B. J. & Steger, M. F. (2008). Randomized trial of a calling-infused career workshop incorporating counselor self-disclosur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2), 203-211.
-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3), 424-450.
- Dik, B. J., Duffy, R. D., & Eldridge, B. M. (2009). Calling and vocation in career counseling: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meaningful work.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6), 625-632.
- Dik, B. J., Eldridge, B. M., Steger, M. F., & Duffy, R. D.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and brief calling scale (B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3), 242-263.



- Dik, B. J., Sargent, A. M., & Steger, M. F. (2008). Career development strivings: Assessing goals and motivation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plann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5*(1), 23-41.
- Dobrow, S. R., & Tosti Kharas, J. (2011). Calling: The development of a scale measure. *Personnel psychology, 64*(4), 1001-1049.
- Douglass, R. P., Duffy, R. D., & Autin, K. L. (2016). Living a calling, nationality, and life satisfaction: A moderated, multiple mediator mode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2), 253-269.
- Duffy, R. D., Allan, B. A., Autin, K. L., & Bott, E. M. (2013).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It's not about having it, it's about living i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1), 42.
- Duffy, R. D., Allan, B. A., Autin, K. L., & Douglass, R. P. (2014). Living a calling and work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4), 605.
- Duffy, R. D., Allan, B. A., & Bott, E. M. (2012).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vestigating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3), 469-479.
- Duffy, R. D., Bott, E. M., Allan, B. A., Torrey, C. L., & Dik, B. J. (2012). Perceiving a calling, living a calling, and job satisfaction: Testing a moderated, multiple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50.
- Duffy, R. D., Dik, B. J., & Steger, M. F. (2011). Calling and work-related outcomes: Career commitment as a mediat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2), 210-218.
- Duffy, R. D., Manuel, R. S., Borges, N. J., & Bott, E. M. (2011). Calling, vocational development, and well being: A longitudinal study of medica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2), 361-366.
- Duffy, R. D., & Sedlacek, W. E. (2007).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a calling: Connection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3), 590-601.
- Duffy, R. D., & Sedlacek, W. E. (2010). The salience of a career calling among college students: Exploring group differences and links to religiousness, life mean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1), 27-41.
- Dobrow, S. R., & Tosti Kharas, J. (2011). Calling: The development of a scale measure. *Personnel psychology, 64*(4), 1001-1049.
- Douglass, R. P., & Duffy, R. D. (2015). Calling and career adaptabili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6*, 58-65.
- Frankl, V. (1959). *Man's search for meaning*. NY: Simon & Schuster.
- Germeijs, V., & Verschuere, K. (2007).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Consequences for choice implementation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2), 223-241.
- Hall, D. T., & Chandler, D. E. (2005). Psychological success: When the career is a call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6*(2), 155-176.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eine, S. J., Proulx, T., & Vohs, K. D. (2006). The meaning maintenance model: On the coherence of social motiv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2), 88-110.
- Hirschi, A.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 Hirschi, A. (2011). Callings in career: A typological approach to essential and optional compon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1), 60-73.
- Hirschi, A., Herrmann, A., & Keller, A. C. (2015). Career adaptivity, adaptability, and adapting: A conceptu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7*, 1-10.
- King Jr, W. C., Miles, E. W., & Day, D. D. (1993). A test and refinement of the equity sensitivity construc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4), 301-317.
- Kristof-Brown, A. L., Zimmerman, R. D., & Johnson, E. C. (2005). Consequences of individuals' fit at work: A meta-analysis of person-job, person-organization, person-group, and person-supervisor fit. *Personnel psychology, 58*(2), 281-342.
- McLean, K. C., & Pratt, M. W. (2006). Life's little (and big) lessons: Identity statuses and meaning-making in the turning point narratives of emerging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42*(4), 714.
- Park, C. L., & Ai, A. L. (2006). Meaning making and growth: New directions for research on survivors of trauma. *Journal of Loss and Trauma, 11*(5), 389-407.
- Park, C. L., & Folkman, S. (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2), 115-144.
- Porfeli, E. J., & Savickas, M. L.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US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 to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748-753.
- Praskova, A., Hood, M., & Creed, P. A. (2014). Testing a calling model of psychological career success in Australian young adul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5*(1), 125-135.
- Rudolph, C. W., Lavigne, K. N., & Zacher, H. (2017). Career adaptability: A meta-analysis of relationships with measures of adaptivity, adapting responses, and adaptation res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8*, 17-34.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 span, life 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1*, 42-70.
- Savickas, M. L. (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 and practice.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 147-183.
-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661-67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
- Steger, M. F., Oishi, S., & Kesebir, S. (2011). Is a life without meaning satisfying? The moderating role of the search for meaning in satisfaction with life judgment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3), 173-180.
- Steger, M. F., Pickering, N. K., Shin, J. Y., & Dik, B. J. (2010). Calling in work: Secular or sacred?.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1), 82-96.
- Steger, M. F., Kashdan, T. B., Sullivan, B. A., & Lorentz, D. (2008). Understanding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Personality, cognitive style, and the dynamic between seeking and experiencing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76(2), 199-228.
- Steger, M. F., Oishi, S., & Kashdan, T. B. (2009). Meaning in life across the life span: Levels and correlates of meaning in life from emerging adulthood to older adulthood.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1), 43-52.
- Steger, M. F., Kawabata, Y., Shimai, S., & Otake, K. (2008). The meaningful life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Levels and correlates of meaning in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3), 660-678.
- Super, D. E. (1951).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Occupations*, 30, 88-92.
- Tak, J.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 korea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712-715.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Vallacher, R. R., & Wegner, D. M. (1989). Levels of personal agency: Individual variation in action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660-671.
- Wong, P. T., & Fry, P. S. (1998). *The human quest for meaning*. Mahwah, NJ: Erlbaum.
- Wrzesniewski, A. (2003). Finding positive meaning in work.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s of a new discipline*, 296-308.
- Wrzesniewski, A., McCauley, C., Rozin, P., & Schwartz, B. (1997). Jobs, careers, and callings: People's relations to their wor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1), 21-33.

원고접수일 : 2020. 02. 18.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4. 03.  
최종게재결정일 : 2020. 04. 03.

## **The Effect of Calling on Career Adaptabili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arch for and Presence of Meaning**

**Hyunjoon Chin**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Only a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career calling on career adaptability and the mechanisms behind this relationship, so this investigated how the search for and presence of meaning, the two elements of meaning in life, affect this relationship. 247 Participants completed a survey on career calling, career adaptability, the search for meaning and the presence of meaning. Correla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research variables. A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test was conducted to test the proposed mediating effects. Finally, a bootstrapping procedure was used with SPSS Macro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areer calling was positively related with career adaptability. Second, the search for and presence of meaning both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alling and career adaptabilit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search for meaning alone can lead to positive outcomes, such as increasing career adaptability, a result not found in previous studie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alling and career adaptability was sequentially mediated by the search for meaning and the presence of meaning. This paper ends with a discussion of implications of this study 's results in clinical practice and this study's limitations.

*Key words* : *Calling, Search for meaning, Presence of meaning, Career adaptability*